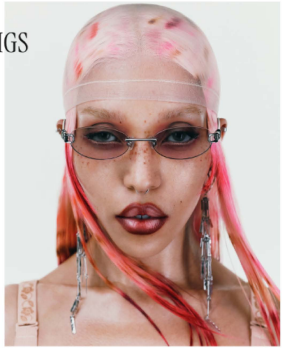

2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CAMPAIGN
WITH. FKA TWIGS



GENTLE MONSTER



출처: 아이아이컴바인드 홈페이지

재량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국회의원 김주영

재량근로자 84.6%

“출퇴근 시간 고정되어 있었다”

6-7.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 예, 완전히 고정됨 (출근 시, 퇴근 시)(35.4)

☐ 대체로 고정되어 있음(49.2)

- ☐ 부분적으로 조정 가능(13.8)

- ☐ 자유롭게 조정 가능

7-2. 업무 수행 시간(언제 일할 것인가)은 누가 결정합니까?

- ☐ 본인이 전적으로 결정(29.3)

- ☐ 본인이 주로 결정하되 상사의 승인 필요(24.9)

☐ 상사와 협의하여 결정(22.7)

☐ 상사가 주로 결정(11.6)

☐ 상사가 전적으로 결정(11.6)

7-3. 업무 수행 장소는 누가 결정합니까?

- ☐ 본인이 전적으로 결정(19.3)

☐ 본인이 주로 결정하되 상사의 승인 필요(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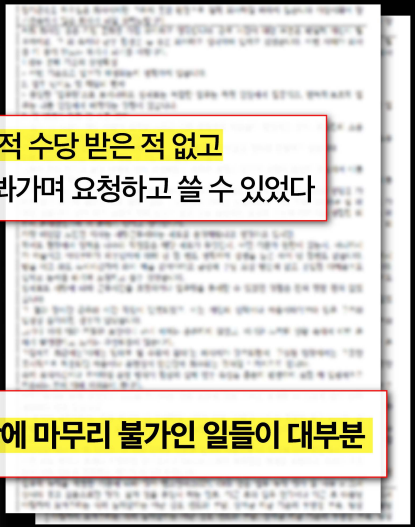
☐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근무(47.5)

- ☐ 기타 (구체적으로: ___)

직원들은 재량근무제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과 권한이 있는지 회사로부터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밤을 새고 와도 금전적 수당 받은 적 없고
대체휴무도 눈치를 봐가며 요청하고 쓸 수 있었다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량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경험은 전혀 없었다.



일의 양과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절대 업무시간에 마무리 불가인 일들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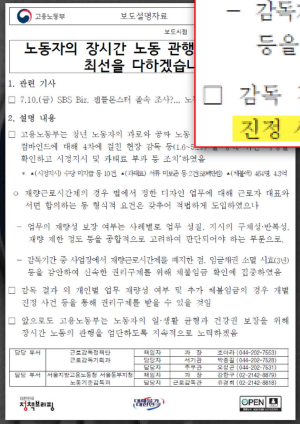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출·퇴근 시간 제약은 재량권 침해"

- (출·퇴근 시각)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질서유지, 근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각**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업무기한) 업무수행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관행
최선을 다하겠습니

1. 관련 기사

□ 7.10.(금) SBS Biz, 썸플론스터 출속 조사?... 노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장년 노동자의 자료와 공부 노동
점버인드에 대해 4개에 걸친 현장 감독 등(1.6-
확인하고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였음

* ◆(시정지시) 구간 미지급 등 10건, ◆(과태료) 서류 미보존 등 2건(3백만원), ◆(체불액) 46억 4.2억

○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디자인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등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 적법하게 도입하였으나

- 업무의 재량성 보장 여부는 사례별로 업무 성질, 지시의 구체성·반복성, 재량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 감독기간 중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시간제를 폐지한 점, 임금채권 소멸 시효(3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임금 확인에 집중하였음

□ 감독 결과 의 개인별 업무 재량성 여부 및 추가 체불임금의 경우 개별 진정 사건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엄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조나라 (044-202-76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종일 (044-202-7628)
		담당자	주무관	오신근 (044-202-7637)
협조 부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책임자	과 장	김한규 (02-2142-9809)
	노동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이경희 (02-2142-9810)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 OPEN

26. 7. 10.(금)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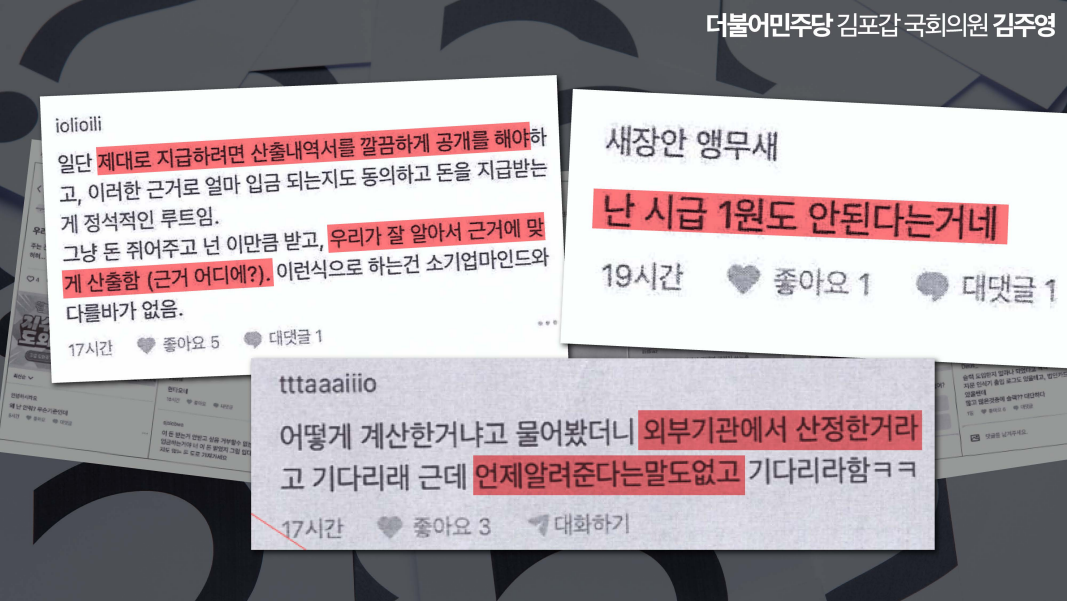
– 감독기간 중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시간제를 폐지한 점, 임금채권 소멸 시효(3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임금 확인에 집중하였음

□ 감독 결과 외 개인별 업무 재량성 여부 및 추가 체불임금의 경우 개별 진정 사건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재량근로제 운영 중 위법 정황 포착

노동부 대응은...?

"개별적으로 진정 제기 가능"


iolioili
일단 제대로 지급하려면 산출내역서를 깔끔하게 공개를 해야하고, 이러한 근거로 얼마 입금 되는지도 동의하고 돈을 지급받는게 정석적인 루트임.
그냥 돈 쥐어주고 넌 이만큼 받고, 우리가 잘 알아서 근거에 맞게 산출함 (근거 어디에?). 이런식으로 하는건 소기업마인드와 다를바가 없음.
17시간 좋아요 5 대댓글 1
새장안 앵무새
난 시급 1원도 안된다는거네
19시간 좋아요 1 대댓글 1
tttaaaiiio
어떻게 계산한거냐고 물어봤더니 외부기관에서 산정한거라고 기다리래 근데 언제알려준다는말도없고 기다리라함ㅋㅋ
17시간 좋아요 3 대화하기

트렌드 주도하는 젊은 기업, 명성 뒤에 숨은 청년 노동자의 눈물

과로가 열정과 헌신으로
포장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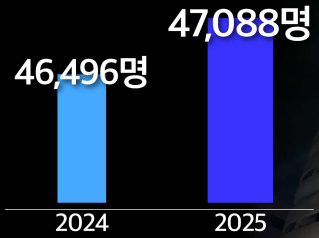
성과금 지급이 공지 없이 계속 미뤄지고
차등의 이유와 기준도 모호하다

직급을 이용해 본인의 개인적인 기준을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업무 외 워크샵, 회의 참석 강요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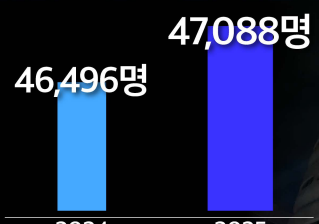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국회의원 김주영

성동구 소재 사업장 청년 고용보험 가입 현황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국회의원 김주영

성동구 소재 사업장 청년 고용보험 가입 현황



성동구 청년 관련 노동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

